

고흥군, 어촌계 자발적 참여로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

체계적 어항 관리 강화...폐어구 10톤 수거·폐어선 20척 정비 성과



북촌 남촌 어촌계 주민들이 북동항에서 폐어구와 폐어망을 수거하며 어항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어항 내 무단 적치된 어구·어망과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항시설 유지·관리 전담 체계를 본격 운영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항 내에 무단으로 쌓아둔 어구·어망과 방치된 해양쓰레기 등은 어항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해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군은 국가·지방·소규모어항 등 총 148개 어항시설을 대상으로 어촌계장을 어항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항 관리원과 바다환경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전담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어항시설 정기 점검,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불법 적치·무단침몰 행위에 대한 계도,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보성군, 신속집행·소비투자 점검... 지역경제 회복 총력

보성군은 21일 이상철 보성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2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집행 현황 점검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기조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소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전 부서장이 참석해 ▲신속집행 추진 현황 ▲소비투자 집행 실적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상황 ▲집행 부진 사유 및 개선 대책 등을 공유했으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보성군의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2,715억 원으로, 현재까지 1,67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1%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군, 60세 이상 주민 '치매조기검진' 연중 무료 실시

해남군은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해남군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가까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전문 도구를 활용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로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건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여 검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치매로 진단될 경우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이유빈 기자

/김윤성 기자

/박종욱 기자

진도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흥군, 외반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대처 현장훈련 실시

진도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해 진도군이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이 아닌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중앙부처의 통계 자료 등 '정량지표 평가'에 따른 구분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 지역으로 구분해 추가 지급된다. 우대지원지역은 49개, 특별지원지역은 40개이며, 전남에서는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이 우대지원 지역으로,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됐다.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최근 장동면 외반저수지 일원에서 '2026년 저수지 붕괴 비상대처(EAP)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저수지 제방 붕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상황 전파, 주민 대피, 긴급 복구 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에는 전라남도도와 장흥군,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장흥경찰서, 장흥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 긴급복구 동원업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주의·경계 단계 ▲심각 단계 ▲수습·복구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실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다. 또한 재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처럼 적용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수산물 수출길 넓힌다! 코리아 씨푸드 쇼 참가



2026 코리아 씨푸드쇼 특산물 공동 홍보관 운영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수산물 해외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코리아 씨푸드 쇼'에 참가해 '완도군 특산물 공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는 바다엔(영),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유), 다시마전복수산(영), (유)대한물산, 해미원(영), (주)바다명가, (유)해성인터내셔널, (주)디에이치비이오 8개 업체가 참여해 완도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업체들은 냉동 전복과 전복을 활용한 밀키트, 전복 소시지, 김 스낵, 매생이 쌀국수, 해물 죽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코리아 씨푸드 쇼에서 마련한 상담회를 통해 국내외 유통망 확대 및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기간 중 열린 수출 상담회

에 참여했던 바이어들이 홍보관을 방문하며 완도 수산물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박람회에도 참여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 씨푸드 쇼'는 한국수산물회 주최·주관하는 국내 수산 식품 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의 88개 기업이 참가했다.

완도군은 다양한 가공 수산물을 앞세워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완도 특산품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번 참가를 통해 신규 바이어 발굴과 기존 거래처와의 협력 강화 등 실질적인 수출 상담 성과도 거뒀다.

군은 향후 해외 박람회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산물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